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강 봉 수  
(제주대학교 교수)

## I

발표자의 글은, 현행 제주도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이점도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제도라는 점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밝히고, 그것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발표자는 제주도 쓰레기 대란의 근본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유입인구 및 관광객 급증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민의 관련 시민의식이라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그는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제주의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관광객을 수용하는 환경총량제를 시행한다.

둘째, 쓰레기에 대한 도민 의식을 새롭게 변혁하고 개선해나간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① '요일별 배출제 홍보대사' 활용하기, ② '요일별 배출제 달력'과 같은 홍보 방법의 다양화, ③ 생활쓰레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제 행사 발굴하기, ④ 체험 위주의 쓰레기 교육 강화 등을 들고자 한다.

셋째, 요일별 배출제는 사후 대책으로 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기에 5R 운동과 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고안해나간다.

끝으로 소유 지향의 사회에서 존재 지향의 사회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용한 혁명을 이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3덜.3더 운동'을 펼쳐나간다.

발표자의 논제로 제한한다면 그의 개선방안은 분명 의미 있는 대안들이 될 것이다. 특히, 첫째와 둘째의 대안들은 당장이라도 제주도가 실천해주기를 바란다. 제주도민 아니 세계시민들이 모두 <5R운동>과 <3덜3더운동>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지구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자가 보기에 이러한 운동은 장기적인 과제로 삼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안들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인간의 이기심과 자본주의의 생리는 그렇게 환경 친화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 II

논제의 제한에 원인이 있겠지만, 발표자의 글은 제주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총량제와 같은 제도(정책)적 대안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나머지 대안들은 시민의식 개선에 초점을 둔 개인윤리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쓰레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원인진단은 물론 해결방안 모색에도 보다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을 요구한다. 과도한 쓰레기의 발생원인, 쓰레기 줄이기 대책, 쓰레기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하는 가운데, 개인윤리적 해결방안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이념, 제도, 정책) 및 과학기술적 접근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과도한 쓰레기 발생의 원인은 무엇일까? 토론자가 보기에 대략 7가지 요인이 중첩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 1) 과잉소비를 부추기는 자본과 기업의 상품생산과 광고전략

이 요인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탈을 벗어던진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주의사회라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라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상품의 질보다는 과대포장과 소비자를 유혹하는 디자인 등으로 무장하고 대대적인 광고 전략을 펼친다. 특히 오늘날 온라인시대의 상품시장은 더욱 현란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정작 상품보다는 과대 포장된 상품의 겉껍질이 더 중요하고, 그것은 바로 많은 쓰레기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2) 체면을 중시하는 과시적 소비 및 허례허식을 추구하는 인습적 문화전통

자본시장의 상품생산과 광고 전략은 체면과 허례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문화전통에 들어맞는 전략이다. 이러한 인습적 문화전통을 고치려고 정책과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과도한 상차림과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난다. 접대와 향응문화가 온존하고 분수에 넘치는 과시적 소비문화가 남아있다.

### 3)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환경수용력의 한계를 넘어선 무분별한 개발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전략에 대한 제주의 응전이었다. 국제자유시는 자본과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념으로 삼는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환경수용력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개발만이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제주의 산(오름)과 들(곶자왓), 해안 등 개발의 힘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개발은 곧 파괴이기도 하고 엄청난 환경 및 산업 쓰레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관광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 4) 유입인구 및 관광객 급증

제주로의 유입인구 및 관광객의 급증도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무관하지 않다. 개발붐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무비자 및 투자정착제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기도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제주에서 대안적 삶을 찾아 들어온 이주민들도 있지만, 이 중에는 무분별한 개발에 실망하여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국제자유도시 및 관광 전략에 따라 관광객도 급증하였다. 정주민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쓰레기 배출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 5) 제주도민 및 관광객의 시민의식

체면과 허례를 중시하는 인습적 문화전통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쓰레기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생활습관에 길들어지지 않은 도민과 관광객들의 시민의식도 한몫하고 있다. 산업 및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과 감귤폐기물 등도 만만치 않다.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플라스틱 등 해안쓰레기도 엄청나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가능하면 줄이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기 등은 인식과 실천이 꺾이지 않도록 생활습관화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입도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관련 시민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 6) 사후처리에 방점을 둔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은 쓰레기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클린하우스제도가 그렇고 요일별 쓰레기배출제가 그렇다. 쓰레기 감량정책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현재와 같이 사후처리 정책에 방점을 두는 한 쓰레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7) 쓰레기 처리 시설 및 재활용 과학기술의 미비

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2019.7.8~ 2019.8.13)에 따르면, 제주시 매립장의 경우 봉개, 동부, 서부매립장 모두 포화된 상태로 잔여매립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곳 모두 계획된 매립량을 넘어서 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소각장 포화와 재활용시설 포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봉개매립장의 경우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매립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슬러지는 소각처리 해야 하지만 소각장포화로 매립하고 있고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은 동북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으로의 반입이 협의되지 않아 자체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부와 서부매립장 역시 봉개매립장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주매립장인 색달매립장의 경우 '재활용 잔재물 및 협잡물을 포함해 대형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가연성쓰레기가 상당량 반입되고 있으며 하수준설토, 음식물슬러지, 폐감귤류 등 유기성폐기물도 상당부분 반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가연성과 유기성폐기물의 비중이 높은 경우 매립장 압력과 메탄가스에 의해 자연발화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색달매립장의 경우 메탄가스를 포집하지 않고 공기 중으로 자연 방

출하다 최근 1년 사이 2차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동 조사에 의하면, 서귀포시 4곳의 매립장의 잔여 매립량은 색달매립장 4%, 남원매립장 8%, 표선매립장 7%, 성산매립장 3% 등이다. 사실상 2020년 상반기 정도에는 4곳 매립장 모두 포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제주도내 주요 매립장들인 봉개, 동부, 서부 등 제주시 매립장 3곳이 매립 포화 상태로 인해 이미 묻은 쓰레기를 파내어 그 속에 다시 쓰레기를 묻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처럼 쓰레기 처리시설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주도의 재활용처리시설은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에는 25,077톤의 재활용쓰레기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됐다. 이중 13,554톤이 재활용으로 처리되었고, 11,523톤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중 6,827톤은 매립됐고 3,649톤은 소각됐다. 나머지 1,047톤은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상태다. 물론 분리배출단계와 수거운반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렵게 된 측면도 있겠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양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III

제주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대로 쓰레기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감량정책에 방점을 두면서 합리적인 사후처리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윤리적, 사회윤리적,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한 종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토론자의 안을 간략한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쓰레기 감량방안(발생원인 제거)	쓰레기 사후처리 방안
개인윤리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면을 중시하는 과시적 소비 및 허례 허식을 추구하는 인습적 문화전통의 교정</li> <li>• 제주도민 및 관광객의 시민의식 제고(5R운동, 3덜3더운동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민 및 관광객의 시민의식 제고(5R운동, 3덜3더운동 등)</li> <li>• 현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제 등의 교육홍보 강화</li> </ul>
사회윤리적 접근 (이념, 제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잉소비를 부추기는 자본과 기업의 상품생산과 광고 전략을 막는 법률 및 제도 수립</li> <li>• 환경수용력의 한계를 넘어선 무분별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의 수정, 생태·인권·평화의 섬으로 전환</li> <li>• 유입인구 및 관광객 급증을 막는 수요 관리정책 및 환경총량제 도입</li> <li>• 제주도 쓰레기 정책을 감량정책으로 전환: 1회용품 규제강화,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관광산업의 책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제 등의 제도적 보완</li> <li>• 산업 및 농어업 폐기물처리 규제강화</li> </ul>
과학기술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처리 시설의 확충</li> <li>• 재활용 과학기술의 현대화 및 활성화</li> </ul>